

간호대학생의 「통일과 간호」교과목 수강 경험: 북한사람에 대한 이해*

신정은** · 홍수민*** · 추상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남과 북이 분단된지 70년이 넘으면서 남북한의 법적·정치적·경제적 제도의 격차는 심화되었다(Kwak & Moon, 2017).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예방의학을 중심으로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를 시행하여 80년대 초기까지는 남한의 의료수준보다 앞선 수준을 보여주는 듯 했다(Jung, 2014, Lim, Kim, & Park, 2001).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동유럽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붕괴와 자연재해로 인한 극심한 식량난, 에너지 부족을 겪으면서 북한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었고, 보건의료시스템도 붕괴하였다(Lee, Lee, & Yoo, 2014; Shin, Lee, An, & Jeon, 2016). 이로 인해 기대수명의 경우 남한 82.3세, 북한 70.6세로 차이가 벌어졌고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남한에 비해 약 6.8배, 모성 사망비는 약 7.5배, 결핵 유병률은 약 6.7배로 남북한 건강 수준에서 상당한 격차가 확인되고 있다

(Hwang, 2014; Shin & Chu, 2019). 남북한 건강수준의 격차와 상이한 보건의료체제로 인해 의료 및 사회 복지에 소요되는 통일비용이 전체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선제적인 협력과 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Kim, 2015). 2018년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공개된 평양공동선언문에서도 남과 북이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과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Ministry of Unification, 2020). 보건의료 영역은 남과 북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추구하여, 상호신뢰 형성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보건의료인들은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회,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인식을 가져야 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진료 경험을 축적하여 북한 주민과 북한 환자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Jeon et al., 2018).

통일외식은 통일에 대한 감정, 인식, 행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통일 자체에 대한 의식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이해와 인식,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통일정책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6-2017-0174).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원(<https://orcid.org/0000-0002-5756-8436>)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https://orcid.org/0000-0002-5884-1799>)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김모임간호학연구소, 상임연구원(교신저자 E-mail: shchu@yuhs.ac) (<https://orcid.org/0000-0001-6877-5599>)

• Received: 14 October 2020 • Revised: 16 December 2020 • Accepted: 22 December 2020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Chu, Sang Hui

50 Yonsei-ro, Seodaemun-gu,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Seoul, 03722, Korea
Tel: +82-2-2228-3257 Fax: +82-2-2227-8303 E-mail: shchu@yuhs.ac

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성격을 띤다(Kim et al., 2019). 통일보건의료 의식은 이러한 통일의식에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및 인력 양성체계, 질병 현황 및 의학용어 이해 등 북한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북한 주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 및 북한 보건의료인과의 협력적 태도를 요구한다. 특히, 북한과 보건의료인 양성체계가 다르고, 사회경제적 환경이 다른 남한에서 훈련받은 보건의료인들이 북한 보건의료인들과 함께 한반도 차원에서 보건의료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Jeon et al., 2018).

예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통일보건의료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관심과 통일보건의료에 관해 배울 의향이 높고, 통일 후 북한 의료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북한에서 보건의료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ang et al., 2016). 따라서 보건의료인 또는 간호대학생과 같은 예비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보건의료 교육은 북한의 보건의료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건강공동체’라는 틀 안에서 남북한 관계를 바라보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건의료 영역에서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과 간호’ 교과목은 1) 통일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2)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3) 통일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4) 남북한의 보건의료와 간호의 현실 및 체계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통일시대에 필요로 하는 통일간호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보건의료계열 학과에서는 처음으로 2017년 2학기 Y대학 간호대학에서 전공선택과목(1학점)으로 개설되었다. 북한사람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감의 태도, 이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책임의식 함양 등을 주요 학습성으로 제시하고, 강의 및 토의의 전통적인 교수학습법 외에도 현장학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체험과 영상제작 등의 조별과제를 포함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만족도, 피드백, 도전, 학생 몰입과 노력, 변화와 성장, 비차별적 원칙의 측면에서 양적으로 평가하는 강의평가에서는 매우 우수하게 성취수준이 평

가되었으나, 적은 선택인원 극복과 인식 변화라는 학습성과 측면에서의 성취 수준 평가는 지속적으로 교과목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확인되었다.

질적 연구방법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서술적 형태로 표현하여 의미를 찾고 관점과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전체적인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다소 낮은 ‘통일’이라는 주제를 간호교육과정에서 접한 학생들의 구체적 경험을 통해 1) ‘통일과 간호’ 교과목을 수강하게 된 계기를 확인하고, 2) 교과목에서 달성하고자 하였던 주요 학습성과(북한사람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감의 태도, 더불어 사는 사회적 책임의식)를 어떻게 경험하였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통일보건의료 교육(통일과 간호, 1학점)을 한 학기동안 제공한 후, 수강 경험을 탐색하여 과목 선택 동기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통일보건의료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진행되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통일과 간호’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 내용을 분석한 질적 내용분석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2017년 2학기 서울 소재 Y대학교 간호대학에서 ‘통일과 간호’라는 1학점 전공선택 과목을 수강한 간호대학생 2-4학년 16명 중,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일과 간호’ 교과목의 구체적인 학습내용 및 과제(Table 1)와 연구 참여자의 학년, 성별, 나이는 아래와 같다(Table 2).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7)

Participant	Grade	Gender	Age
1	4	Male	27
2	4	Female	24
3	4	Female	21
4	2	Female	27
5	3	Female	20
6	2	Male	22
7	2	Female	21

3. 자료 수집 방법

교과목 수강이 종료된 후,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연구에 대한 소개와 모집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고,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7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생각을 얻기 위해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법으로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반응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더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어(Moon, 2009),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짧은 시간 내에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Kreuger, 1994). 또한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자는 개인의 개별적인 경험에 대해 서로 동의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경험의 다양한 측면을 세부적(in detail)으로 묘사하거나, 또는 심도 있게(in depth) 표현할 수 있다(Berg, 2004).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연구문제에 적합한 질문을 준비하였고, 인터뷰가 진행되는 중 참여자들이 서로 간의 상호작용으로 수업 중 개인이 경험하고 느낀 바를 최대한 끌어내어 자료를 확보하고자, 참여자들의 이야기 흐름에 맞추어 질문을 제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사용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통일과 간호’ 과목을 수강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 “수강 전 북한이나 통일에 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 “수강 후 북한이나 통일,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바뀐 점이 있나요? 있다면 관련한 수업 시간 속 경험이 무엇인가요?”

Table 1. The Syllabus for Unification and Nursing

Week	Lecturers	Contents	Tasks	Time
1	Kim (ex-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in blue house)	Division and understanding of our society		2
2	Choi (ex-director, unification education)	Division and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society		2
3	Jeon (professor, unification humanities research group)	North Korean society and people in North Korea seen through the movie	A movie review (movie: crossing)	2
4	Field trip	Demilitarized zone (DMZ) visit		-
5	Jung (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society and the culture	A field trip report	2
6	Kim (North-South hana foundation)	Understanding North Koreans: an attitude of understanding and empathy toward the North Korean defectors		2
7	Chu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omparis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ducations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2
8	Team presentation	The future of nursing in the Era of Unification: what should do we do?	A report (the idea of reunification, North Korea/Koreans)	2

- “‘통일과 간호’ 과목에 더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나요?”

위의 질문을 기본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중에 인터뷰 내용을 확장하거나 수렴하기 위해 추가 질문을 하였다. 참여자에게 제시된 추가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수업을 듣고 나서 통일에 대한 기존의 생각이 변화되었다는 의미인가요?” 인터뷰는 간호대학 세미나실에서 이뤄졌으며 참여자들이 관심 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의할 수 있도록 서로가 잘 보이도록 배치하였다. 주 진행자 역할을 맡은 연구자 1명과 보조 연구자 1명이 참여하여 준비한 질문을 토대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참여자 대부분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포커스 그룹 당 참여자 수는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그룹 당 4-5명 (Shin et al, 2004) 또는 7-10명(Kim, Kim, Lee, & Lee, 2000)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참여자가 7명임을 고려하여 1개의 그룹으로 진행하였으며, 시간은 총 2시간가량 소요되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인터뷰 자료는 질적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질적내용분석은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자료로부터 고유한 주제를 추출하는 귀납적인 방법으로(Maying, 2000) 근거이론이나 현상학적 방법과 같이 이론적, 철학적 배경이 없어 연구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진 주제들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통찰력을 갖고 분석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자료수집에 참여한 연구자가 분석하였고(Howitt & Cramer, 2005),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박사과정 1인이 추가적으로 분석과정에 참여하였다.

분석에는 녹음 파일과 필사본 아니라 참여자들의 표정, 웃음, 몸짓 등을 기술한 현장노트를 포함하여 비언어적 메시지를 반영하려 하였다. 첫 분석 단계에서 두 연구자는 독립적으로 인터뷰 기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료 내 참여자의 핵심적인 생각과 개념을 포함한 단어나 구절, 문장에 밑줄을 긋고 부호화(code)하였고, 공통되는 것을 모아 범주화(category)하였다. 이후 각

자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여 서로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재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수정작업을 반복하여 인터뷰 원 자료 중 범주에 속하는 내용을 선정하였고, 연관된 범주를 묶어 추상화시켜 결과적으로 1) ‘통일과 간호’ 교과목에 대한 도전, 2) 북한·북한 사람에 대한 인식 확장, 3)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나뉘어진 시각으로 최종 주제(topic)를 확정하였고 결과적으로 3개의 주제와 8가지 범주로 도출하였다.

5. 연구자의 준비

연구자는 질적 연구 분석 경험이 있는 간호학 전공자로 질적 연구에 대한 세미나와 분석 교육을 이수하여 본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역량을 갖추었다. 또한 ‘통일과 간호’ 교과목을 매회 청강하여 학생들의 수업 반응을 관찰하였고, 이를 통해 인터뷰가 진행되는 중 학생들의 반응을 빠르게 이해하고 추가 질문을 제시하여 깊은 생각을 끌어내고자 하였다.

6. 연구 결과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의 질 확보를 위해 Sandelowski (1986)가 제시한 질적 연구 평가 기준인 신뢰성(credibility), 적합성(fittingness), 감사 가능성(auditability),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을 만족시키고자 하였다. 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통일, 북한, 북한 사람에 대한 생각”을 주제로 참여자가 제출한 개인과제를 확인하여 면담 내용을 보완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려 했으며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재분석하여 분석의 신뢰성도 지키고자 하였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고 타 연구 결과와의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감사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를 자세히 기록하여 연구자의 분석과정을 다른 사람이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 분석과정에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에게 피드백을 받아 검증하였다. 확인가능성은 앞서 신뢰성, 적합성, 감사 가능성을 확립하여 확보하였다.

7.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 (IRB No. Y-2017-0123)의 승인을 받았다.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자발적 참여와 익명성 보장 및 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와 성적은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을 분명히 하였고, 인터뷰 중 녹음이 진행될 것을 알리고 동의를 얻었다. 자료는 익명으로 수집되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알렸다. 인터뷰는 교과목 운영 및 강의와 상관이 없는 연구자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녹음과 동시에 인터뷰의 주요 내용을 기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컴퓨터 파일에 저장하고 연구자가 직접 관리하였다.

III. 연구 결과

인터뷰에 참여한 7명의 연구 참여자는 2학년이 3명, 3학년 1명, 4학년 4명으로 구성되었다(Table 2). 성별은 여성 5명, 남성 2명이었고, 연령은 평균 23.1세였다.

내용분석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수강 전 간호대학생들은 통일보건의료에 대해 충분한 사전 정보나 인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간호대학에서 처음 개설된 교과목이 가져다주는 “호기심”과 낯선 학습경험으로의 “확장”, 수업을 통해 가족이나 주변을 통한 “개인적인 경험에서 확장”되길 기대하는 상태였다. 이후 주어진 교육과정을 수강하면서 간호대학생들은 “기존 정보와의 부조화로 인한 혼란”을 겪지만 자기 내면에 “북한을 향한 분별력 없는 판단과 태도에 대해 자각”하고 “북한에 대한 이해의 시작”을 경험하며, “북한사람에 대한 공감과 변화의 시작”을 보여주며, 북한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북

Table 3. Codes, Categories and Themes

Code	Category	The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azing at opening the “unification and nursing” subject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 Feeling fresh and curious at the word “unification” 	Curiosity and expansion on an unfamiliar subject	Challenges to the ‘unification and nursing’ sub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y grandfather coming over from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 Meeting North Koreans through my mother’s missionary work • Meeting North Koreans through internship • Attending the Unification health and care association 	Expansion of personal experience related to North Korea/Korea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expected pictures of Pyeongyang people playing on the beach • Difference from experiences through schools and media 	Confusion due to inconsistency with existing information	Expansion of the awareness for North Korea/Korea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ving a different mind only about North Korea • Guessing North Korea without finding it myself 	The realization of undiscerning attitude/ judgement toward North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rstanding North Korea’s politic system • Understanding the trauma of North Koreans 	Empathy and changing views of North Korea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sidering realistic way of unification • Considering the surrounding situation in North Korea • Thinking a lot about how to work with the North Koreans 	The beginning of a specific concern	Divided views of the imperativeness of unif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t wanting to be divided • Regarding division as part of recurring history 	The repetition of his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ate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but no desire to unify • Wondering if the two Koreas should unify 	North Korea still far away	

한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통일의 당위성 입장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고민의 시작”을 보이거나, “역사의 반복”으로 바라보거나, “여전히 먼 북한”으로 생각하는 서로 다른 입장 차이가 확인되었다.

1. ‘통일과 간호’ 교과목에 대한 도전

참여자들이 ‘통일과 간호’ 교과목을 수강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낮은 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확장과 참여자 개인의 북한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경험을 확장하길 기대하고 있었다.

1) 낮은 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확장

한 참여자는 여행 중 받게 된 북한 관련 질문을 계기로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당사자로서 무관심했던 자신을 반성하던 중 간호대에서 ‘통일과 간호’가 개설되면서 신기하고 호기심에 신청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참여자들도 간호학과 수업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강도 높은 전공 이론 수업과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통일이라는 단어가 신선하고 호기심이 있었다고 표현했다. 또한 간호학 외 사회이슈로의 관심의 확장과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판문점을 수업의 일부로 방문할 수 있다는 경험의 확장을 표현했다.

개강 직전에 여행을 갔었는데 배낭여행이었어요. 이제 김정은 정권되고 미국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동양인을 보면 그런 걸 많이 물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질문은 많이 받았는데 대답을 거의 못해 쫓겨지고 개인적으로 회의감이 들었어요. (중략) 개인적인 회의감에서 좀 사회에 너무 관심이, 사회 이슈에 관심이 너무 없었나 싶어서. 간호대에서 통일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신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호기심에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5)

통일이라는 단어 하나가 주는 호기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간호에만 항상 포커스가 되어 있는 과목들만 개설이 되었는데 간호가 뒤에 가고 통일이 앞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저희 4학년 남학생들 중에는 물론 과제랑 이런 이야기 듣다 보면 “아이, 안 할래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형, 가서 뭐 들어요? 누가 와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호기심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6)

간호대에서 열리는데 실라버스 보니까 간호대 관련 아닌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 거예요. 사실 간호대에서 하는 모든 게 너무 간혹스러워서 지겨웠는데 이것은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판문점 간다는 게 되게 끌렸고요. 잘 갈 수 없다고 들어가지고. 막 혼자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 들어가지고요. (참여자 4)

2) 북한·북한 사람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의 확장

인터뷰에 참여한 7명의 참여자 중 5명은 가족이나 또는 우연한 기회를 통해 북한사람과 관련된 경험이 있거나, 전공이 북한과 관련된 경험이 있어, 수강계기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할아버지의 고향이 북한인 참여자, 어머니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만난 경험이 있는 참여자, 인턴십 활동 중 우연한 기회에 북한이탈주민을 만났던 참여자, 간호대를 전공하기 전 이전 전공이 북한학이었던 참여자가 있었다.

제 할아버지께서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이셔서 가지고 원래 그것 때문에 관심이 있었어요. (참여자 2)

어머니께서 옛날에 통일선교회를 하셨는데 그때도 북한사람들 몇 번 만나봤는데 신기했거든요? 저는 그냥 ‘안녕하세요.’ 한두 마디 하는 그 정도? 원래 파주 살았어서 북한, 통일 박람회 이런데도 많이 갔었고. 졸업하는 김에 판문점 꼭 가자, 이런 생각으로 들었어요. (참여자 4)

북한에 대한 별 생각이 사실은 살면서 크게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난민기구에서 인턴십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탈북하신 분을 register 하는, citizen register하는 것을 한 번 도와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막 진짜 짧은 시간이었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중략) 그래서 진짜 북한, 그래서 그때 막 처음으로 북한사람들 탈북 된가 난민 이런 식으로 생각이 좀 바뀌면서 아, 북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었고 어떻게 풀어나갈까? 궁금했어요. (참여자 1)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5월인가 6월에 저기 〇〇에서 통일보건의료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옛날에 다니던 학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수님들을 찾아뵙려고 갔었어요. (참여자 3)

2. 북한·북한 사람에 대한 인식 확장

1) 기존 정보와의 부조화로 인한 혼란

참여자들 중에는 북한사람들이 탈북을 당연히 원할 것이라 생각했던 자신의 추측과 달리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답하였다. 한 참여자는 북한이 '좀 더 미스터리'하게 느껴졌다고 표현했는데, 매체를 통해 접했던 굶주리고 가난한 실상과 다른 평양의 모습에 놀랐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고 표현했을 뿐 아니라 '더 어려울 수 있는 존재', '생각보다 어렵고 어떻게 이해 할 수 있을지 헷갈린다'고 답하여 혼란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평양사람들이 해변가에 놀고 있는 사진들 보여주시는 분들이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거든요. 이렇게 이룩해낸 자신의 나라의 체제나 경제나 이런 거에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랑스러워한다. 저는 당연히 그런 생각 못했고. '아휴, 얼마나 나오고 싶을까? 진짜 나는 북한에 안 태어나서 정말 감사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참여자 4)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좀 더 미스터리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여태까지 학교에서 교육받고 그냥 미디어로 접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실상들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고, 생각보다, 진짜 못 산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놀랐고 생각보다 발전되어 있는 것들도 많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네?' 이런 것도 있었고 (중략) 솔직히 우리가 70년 동안 너무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을 찾기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것을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에 남는데 '어? 우리가 한민족이어서 더 가까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럼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존재들이 아닌가?' (중략)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는 것인지, 또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헷갈리고, 좀 생각보다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참여자 5)

2) 북한을 향한 분별력 없는 판단/태도에 대한 자각
참여자들은 북한과 관련된 기사와 뉴스가 나올 때 유독 다른 마음가짐과 잣대로 바라보고 반응하고 있었다는 걸 인지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수업을 들으며 참여자들은 직접 찾아보지 않고 남이 심어준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레짐작하며 반응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북한을 탈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한민족으로 동질성을 느끼기 보다는 주인공 행세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했다. 수업을 들으며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자각의 순간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다고 표현했다.

초반부에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어떤 분이 '일본 이랑은 그렇게 아픈 역사가 있는데도 지금 수교도 하고 지내는데 왜 북한에 대해서만 왜 그렇게 다른 마음이 짐으로 보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셨는데 전혀 그런 것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당연히 막 (미사일을) 발사하면 분노하고 그러는데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처음은 망치로 머리 맞은 느낌이었어요. 어~ 전혀 그렇게 생각 못했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남이 심어준 시선으로 계속 보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고. (중략)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주인공행세를 하고 있었는지, 그들에 대해서 내 나라라고, 사실 내 깊은 마음속에선 절대 한민족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랬어요. (참여자 4)

제가 옛날에 배웠던 걸 그냥 더듬더듬 기억을 꺼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은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항상 이상한 도발을 많이 한다.' 이렇게 저한테는 항상 프레임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중략) (휴대폰을 두드리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찾아보라고. 거기에 다 모든 사실이 있다고. 그때 저는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망치로 머리 얻어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어련히 그러하겠지'라고 생각해 버리고 직접 찾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죠, 북한에 대해서는. (참여자 3)

3) 북한 사람에 대한 공감과 변화된 시각

참여자들은 수업을 들으며 북한과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북한 속 북한 사람들의 언행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북한의 체제 특징과 문화를 들으며 '그 사람들의 시각을 자신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표현했다. 또한, 북한이탈 과정에서 얻게 된 외상 경험을 인식하면서 의료인의 시각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부적응과 행동을 이해하게 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북한사람들이 김일성 주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걸 설명하시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완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그분을 생각하든지, 김일성 주석을 생각하는지 완전 알겠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나?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를 하는지 딱 생각하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냐? 그 체제를? 이게 이해가 가서 제가 지금 모든 커리큘럼 들었던 것 중에 가장 북한을 핵심적으로 말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그 정치체제를 바라보는지 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참여자 1)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저도 만나보기는 했지만 그걸 트라우마 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걸 어떤 트라우마로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면 그것을 단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니까 그렇지'가 아니라 이제 왜 그런지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좀 보여주셨던 게 가장 컸던 것 같고..(생략) (참여자 3)

3.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나뉘어진 시각

참여자들은 동일한 수업을 들었지만 통일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수업을 들으며 통일의 과정과 이후 통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필요성은 인식했지만 마음은 생기지 않는 회의적인 그룹으로 크게 나뉘었다.

1) 구체적인 고민의 시작

참여자 중에는 여러 각도를 통해 북한과 북한사람, 국제정세를 알게 되면서 구체적인 시각에서 통일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인식의 변화를 보였다.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통일 방식이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방

법임을 알고 난 뒤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어렵게 느껴졌다'며 복잡한 마음을 표현했다. 또한, 간호수준의 현격한 차이나 간호인식의 깊은 온도차를 알게 되면서 통일 이전에, 간호분야의 격차를 해소하는 과제만으로도 만만치 않은 일임을 실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는 오히려 수업을 듣고 '내가 통일에 대해서 너무 안알하게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북한 민간인들이 그래도 겉으로는 신봉하지만 속으로는 안 따르지, '신봉하는 척만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중략) 그냥 김정언이 무서우니까 신봉하는 척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강의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것 같아서.. 저는 '통일의 방식이 뭐가 민간인들이 혁명 같은 것을 일으켜가지고 정권들이 붕괴하는 그런 식으로 되면 그렇게 하면 통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통일 방식도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중략) 오히려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통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참여자 2)

저도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생각이 많이 복잡해진 게 이스거든요. 저 같은 경우. 저도 어떤 방식이든 통일은 반드시 될 거고 유럽이나 러시아에 있는 내 친구들을 비행기 말고 기차를 타고 보러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옛날에 조상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차타고 유럽 파리로 가고 사람들하고 교류도 많이 해야 한다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통일을 바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북한을 바라보려면 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도 배웠고 여러 가지 정세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고 그래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여자 3)

저희도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전문직? 예전보다 좋아졌지만 북한은 거의 노동자?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가서 뭐 노동자 할래? 간호사 할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통일이 되면 북한 간호사 분들이랑 저희랑 일하는 게, 어떻게 일해야 될지 그게 진짜 큰 과제이겠구나.'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2) 역사의 반복

통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참여자들은 이유를 역사에서 찾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가 원해서 된 분단

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단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우리나라의 역사상 분열과 통일이 늘 있었기에 역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통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베이직으로 가보면 우리가 원해서 된 분단이 아닌데, 저는 그 생각이 항상 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된 분단이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자 1)

저는 되게 단순한 사람이라서 원래 통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데, 수업 듣고 나서는 통일에 대한 생각이 조금 생겼는데 그냥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몇 백 년에 한 번씩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잖아요? 고구려 났다가 신라 났다가 통일신라 났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것도 언젠가 잠깐 헤어졌다가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역사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참여자 7)

3) 여전히 먼 북한

통일에 회의적인 입장의 참여자들은 ‘통일과 간호’ 수업을 통해 북한과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통일의 필요성은 이해하게 되었지만 알면 알수록 북한과 남한은 서로 다른 나라로 생각하게 된다고 답했다. 한 참여자는 통일은 우리의 생각일 뿐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했고, 다른 참여자는 북한은 그대로이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바뀐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통일을 생각하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남게 된다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저는 북한과 북한사람들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졌는데 ‘통일해야지’라는 마음은 안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다른 나라이고 저희가 갑자기 ‘(아프리카) 가나가 진짜 어렵고 그러는데 통일해서 도와주자.’ 이렇지 않잖아요? 한민족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민족이라는 게 통일을 해야 하는 당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알면 알수록 너무 다르고 저들이 (통일을) 막 우선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부심도 있고 지도자도 좋아한대. 보니까 동남아보다 보건수준도 높고 나름 보니까 그때 치대 발표 같은 것 들어보니까 기초의학도 열심히 하고 있어. 알면 알수록 ‘아 좀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해도는 높아졌는데 다른 나라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참여자 4)

분명히 통일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게 언제일지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고 저는 그냥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했다? ‘아. 이거해야 돼.’라는 의욕이 생겼다 보다는 ‘응~ 이래서 필요하구나?’ 그 정도. 그러니까 마음은, 머리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강의하셨던 분 중에 건대 교수님인가 그 말씀 하셨잖아요? 70년이 지난 지금 바뀐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고, 더 많이 바뀌었던 것은 우리이지 북한이 더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변화된 게 우리이고 생각이 바뀐 게 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일에 대한 지금 이 프로그램, 수업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한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 의구심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6)

IV. 논 의

본 연구는 보건의료계열 대학에서 전공선택 과목으로 처음으로 개설된 ‘통일과 간호’ 교과목을 수강한 예비의료인인 간호대학생들의 수강경험을 통해 수강계기를 확인하고,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확인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통일과 간호’ 수강계기는 ‘낯선 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확장’과 ‘북한·북한 사람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의 확장’으로 일 대학 예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Jang et al., 2016)에서 이산가족 또는 새터민이 있거나 대북 관련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을 경우,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유의하게 크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큰 그룹일수록 통일보건의료 관련 선택 강의가 열릴 경우 수강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것과 일치하게, 참여자들의 절반 이상이 북한과 관련된 직·간접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강을 신청할 당시 북한·북한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확인되었는데, 대학생들의 전공과목 수강신청 기준이 ‘교수자 특성’, ‘학습 편의성’, ‘학습 기대 및 관심’, ‘강의 외적 요소’, ‘강의 실용성’ 순으로 나타난 연구결과(Lee, Yun, & Park, 2017)와는 다르게, 강의명, 과목 커리큘럼, 과목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포함하는 ‘학습 기대 및 관심’과 개인적 상황과 같은 ‘강의 외적요소’가 확인되었다. 이는 정치학, 문화인류학 등 인

문사회계열의 다양한 전공의 교수자가 강의에 참여하고, 수업 개설 시기에 북한의 핵 이슈와 함께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관련 이슈를 대중매체를 통해 수시로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북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인식 수준으로는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고, 수업을 통해 의문을 해결하고자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수업을 수강하며 참여자들은 북한·북한 사람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기존 정보와의 부조화로 인한 혼란, 2) 북한을 향한 분별력 없는 판단/ 태도 자각, 3) 북한 사람에 대한 공감과 변화된 시각의 3가지 특징으로 요약되었는데 이를 통해 해당 교과목의 학습성과 중 하나인 북한사람들에 대한 공감의 태도 변화는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리큘럼 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북한 사회와 문화를 소개하는 강의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사회 체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해당 체제를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해하게 되면서, 기존에 이해되지 않던 북한사람들의 시각과 행동을 이해하고 의료인의 시각으로 북한의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기존의 학교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접한 것과 다른 북한 사람들의 모습에 혼란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는 지금의 대학생들이 초·중·고 시기 교육과정 뿐 아니라 대학에서조차 보건의로 전공과 관련하여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을 받아오지 못하였고, 대중매체를 통해 균형 잡히지 않은 정보와 견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Ko, 2015). 이러한 교육적 배경을 가졌음에도 참여자들이 교과목 수강을 통해 북한·북한 사람에 대한 인식 확장이 확인된 것은 보건 의료인의 시각에서 즉, 생명과 건강의 공동체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중심 통일보건의로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통일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사람'이며, '사람들의 통합'을 통한 보건의를 포함한 일상생활의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북한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통일의 당위성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적 반복의 시각을 가지고 당연히 하는 참여자도 일부 존재하였으나, 참여자 중의 절반 이

상이 수업을 들은 후 통일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할수록 고려해야 할 어려움이 다양하게 존재함을 느끼거나, 여전히 북한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기보다는 먼 나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이 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견해 차이는 확연히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먼저 통일의식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통일의식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한반도 정세와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정책 평가와 함께 성별, 세대, 소득계층, 지역 등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기 때문이다(Lee, 2014). 20대가 주류인 대학생들은 타 연령대에 비해 통일에 대한 입장이 상대적으로 더 소극적이고 회의적이며, 당위적 이유보다는 실리적 이유를 앞세워 통일을 인식하고 있다는 통일의식조사의 결과와 일치하는 모습이었다(Kim et al., 2019). 조사에 따르면 연령대별 통일의 이유로 20-30대는 전쟁위협해소가 가장 크고 40-60대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통일을 생각할 때 20대는 시큰둥함, 20-30대는 불안 등 부정적 정서, 40-60대에서는 희망정서가 가장 높게 나타나 대학생들의 통일정서 수준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당히 부정적이고 현실적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공된 교육은 1학점 교과목으로 7회의 강의와 1번의 체험학습으로 구성되었고, 북한, 북한사람,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이해와 남북한 보건의로 및 간호의 차이를 이해하는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향후 통일비용과 이익교육, 갈등해결교육과 같이 실제적·실천적 교육이 포함되어야 통일에 대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정서가 줄고 견해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통일과 간호' 수강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통일에 대한 입장은 나뉘는 모습이 보였지만 통일보건의로에 대한 관심은 증가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경험과 심리적 부적응을 의료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트라우마로 이해하게 된 모습이나, 통일 이후 북한의 간호사와 함께 일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며 통일 이후 삶의 모습에 관심을 갖고 고민하기도 하고, 보건 의료 영역에서 당면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됨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예비의료인에게 통일보건의로 교육을 제공하는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근 한반도의 급격한

정세 변화와 더불어 그동안 전통적으로 생각하여 왔던 단일국가 형성이라는 의미의 '통일' 개념보다는 남북한이라는 두 개의 주권국가가 함께 '한반도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새로운 개념 속에서 '한반도 건강공동체'의 의미를 이해하고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Jeon et al., 2018). 불확실하고 역동적인 남북한 관계의 변화 속에서도 인간 중심, 생명존중의 가치를 토대로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현의 소명을 인식하고, 보건의료인으로써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통일보건의료 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특징상 무작위적 표본 추출이 아닌 연구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모집되었기 때문에 연구주제에 대한 평균이상의 반응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교과목의 수강계기와 학습성과 증 북한사람에 대한 공감의 태도와 사회적 책임 의식 즉 통일의 당위성 대한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참여에 대한 실천적 의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 내 전공선택 과목으로 개설된 통일보건의료 교과목을 수강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을 확인하고자 수행한 질적 연구이다. '통일과 간호' 수업을 통해 호기심과 개인의 경험에 한정되어 있던 북한·북한 사람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을 대하는 자기 내면에 대한 성찰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건강문제를 의료인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통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보건의료 영역 내 문제를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통일에 대한 시각은 견해 차이를 드러냈는데 통일외식이 가진 광범위하고 복잡한 개념을 고려하여 향후 통일보건의료 교과목 내 내용적 요소와 구조적인 요소를 보완하여 통일시대에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간호대학생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지역사회 참여형 수업을 통해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한 간호 및 보건의료 협력 문제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더불어, 남북한 주민의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북

한이탈주민의 건강문제 해결과 건강증진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러한 역량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erg, B.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ifth ed.)*. Boston: Allyn & Bacon.
- Howitt, D. & Cramer, D. (2005).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s in psychology*. London, England: Pearson.
- Hwang, N. M. (2014). Strategies and challenges of preparation for healthcare for unification. *Health and Welfare Issue and Focus*, 240, 1-8.
- Jang, K. J., Seoung, Y. K., Yoon, S. H., Chung, H. S., Kim, S. H., Yang, Y. L., et al. (2016). Awareness of Korean unification and health care in healthcare professiona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ume*, 30(3), 456-469.
<https://doi.org/10.5932/JKPHN.2016.30.3.456>
- Jeon, W. T., Kang, M. A., Kim, S. J., Kim, S. H., Kim, S. Y., Kim, S. K., et al. (2018). *Preparing for the health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Seoul: Parkyoungsa.
- Jung, H. (2014). The maternal side of the North Korean family state: The case of the medical care sector.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4(1), 81-117.
- Kim, H., Kim, B., Kim, B., Lee, S., Choi, K., Kang, C., et al. (2019, October). *The com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perception survey*.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J. (2015). Financial resources and procurement methods for unification costs, *Journal of Unification Law*, 1, 317-351.

- Kim S. J., Kim, H. J., Lee, K. J., & Lee, S. O. (2000). *Focus group method*. Seoul: Hyunmoon.
- Ko, K. (2015, February 25).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uniform education in universities*, Paper presented at the seminar on the Development of Unification Education in Schools, Seoul.
- Kreuger, R. A. (1994).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Kwak, I., & Moon, H. (2017). An analysis on North Korean impoverishment and marketization in terms of economic system.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21(2), 71-96.
<https://doi.org/10.21212/IASR.21.2.4>
- Lee, N. Y. (2014). What determines Korean perception and attitude on national unification? Searching for the new analytical model. *Peace Analysis*, 22(1), 167-206.
- Lee, G., Lee, B., & Yoo, S. (2014). Health care corruption in undeveloped country: Focusing on drug distribution in North Korea. *Korean Corruption Studies Review*, 19(2), 129-148.
- Lee, H., Yun, G. Y., & Park, I. W. (2017). A study on college student's course selecting standards: Focusing on electives and major course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3(4), 79-99.
<https://doi.org/10.29318/KER.23.4.4>
- Lim, G. S., Kim, C. N., & Park, K. M. (2001). A comparative study on the health care system of South and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5(1), 182-201.
- Maying, P. (2000). 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1(2), Article 20.
- Ministry of Unification. (2020, April, 25). 2018 North South Korean summit. Retrieved from <https://dialogue.unikorea.go.kr/ukd/ba/usrtaltotal/View.do?id=689>
- Moon, H. L. (2009). Mother's perceptions about early childhood social education: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5), 1009-1020.
<https://doi.org/10.5934/KJHE.2009.18.5.1009>
- Sandelowski, M. (1986).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3), 27-37.
<https://doi.org/10.1097/00012272-198604000-00005>
- Shin, H., Lee, H., An, K., & Jeon, J. (2016). North Korea's trends on healthcare system in Kim Jong Un Era: Concentrated on healthcare delivery and organizational system.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8(2), 181-211.
<https://doi.org/10.35369/jpus.8.2.201612.181>
- Shin, J. E. & Chu, S. H. (2019). *Current and future tasks of nursing in North Korea*. Seoul: Aju South and North Korea Healthcare Research Institute.
- Shin, K. R., Koh, M S., Kong, B. H., Kim, K. S., Kim, M. Y., Kim, E. H., et al. (2004). *Qualitative methodology*.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ABSTRACT

Experiences of Taking the Class of 『Unification and Nursing』 in Nursing College Students: How They Understood North Koreans*

Shin, Jung Eun (Researcher, Department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Seoul)

Hong, Soomin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Seoul)

Chu, Sang Hui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 Researcher, Mo-Im Kim Nursing Institut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Seoul)

Purpose: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a change in the aware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health care systems after providing unification and nursing education. **Methods:** After taking all sessions of the classes, seven participations responded in a semi-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 The data were analyzed by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sults:** Three themes and eight categories were deduced. Curiosity and expansion on an unfamiliar subject, and expansion of personal experience related to North Korea/Koreans were identified in the theme of challenges to the ‘unification and nursing’ subject. Confusion due to inconsistency with existing information, the realization of undiscerning attitude/judgement toward North Korea, and empathy and changing views of North Koreans were identified in the theme of expansion of the awareness for North Korea/Koreans. The beginning of a specific concern, the repetition of history, and North Korea still far away were identified in the theme of divided views of the imperativeness of unification. **Conclusion:** Through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 could examine how students in this study had deepen their understandings in terms of North Koreans beyond their personal experiences by taking the course of 『unification and nursing』.

Key words : Nursing students, Unification, Healthcare, Qualitative study, Curriculum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6-2017-0174).